



어느덧 25년도 X-mas 가 다가오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열심히 잘 마무리합시다. 화이팅! 사장님께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남은 시간들을 더욱 알차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직장생활들을 하면서 새로운 제과점에서는 새롭게 커피도 빵도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원장님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25년도에는 다들 힘들어 하시고 건강들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장주원님도 건강이 정말 안 좋으셔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선즈 동산에서도 계속하여 몇 분과 함께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요. 26년에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현지에 다녀왔는데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은 열렸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러네요.

또한 저 윗쪽 소식은 조용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잘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사장님께서는 그런대로 계속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시며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다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깁스를 빼긴 했는데 아직도 좀 절뚝거리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동안 눈은 오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지요.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날씨는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려 준비하고 있지요. 좋은 분들을 초청하여 1월 초부터 열심히 으쌰으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힘을 더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많이 많이 바라봐 주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뻘뻘리 뻘뻘리 소리를 울립니다.

12.2025 이전세/옥소리 드림